

영광군, 개인용이동수단 실증 착수

e-모빌리티 자유특구 총 10.6km 구간 실시

전기자전거·초소형전기차 등 19개사 참여

영광군은 12월까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수단 실증사업을 범섬 입암리 자전거 전용도로와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 총 10.6km 구간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산업을 지역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이 투입되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PM),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e-모빌리티 기업지원 △범

제 장비 및 교통영향 분석 △도로 시설기준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e-모빌리티 연구개발 사업에 전기자전거, 초소형전기차 등 관련 기업 19개사가 참여하며 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인용이동수단 운행을 위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교육, 보험기준 등 세부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 인증기준 등은 마흡한 실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스포츠방식 전기자전거와 개인용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이를 입증받은 제품이 시장에 공급돼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은 7월 중순부터 일반인 시험자도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알바몬과 알바전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집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 협의를 추진해 e-모빌리티 안전기준과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한 e-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 현경면에 전국 최대규모 첨단농업복합단지 들어선다

무안군 현경면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복합단지가 들어선다.

2월 군에 따르면 2022년 말 완공 예정인 첨단농업복합단지는 농업인을 위한 마태농업을 실현하고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부지 19만1599㎡(약 6만평), 사업비 342억원(국비 포함)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6월 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부 자심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첨단농업복합단지에는 농업기

술센터의 청사 신축과 함께 스마트팜 실습·체험·교육시설, 농산물 조사분석실 등 과학영농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농업용 드론 등 농기계의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촌과 도시가 교류하고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가 휴식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자연생태농업 체험장도 문을 연다.

단지 내 팜 카페와 로컬푸드 식당,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6차산업 체험형 방문객센터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명품 숲과 해안길이 어울어진 '1004섬 자전거여행 인기'

신안군, 기점-소악도 25km 구간 추가·임자도-증도 길목 위치한 지도읍에 42km 자전거길 더해



신안 섬 자전거 여행이 전국 라이더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바다와 섬을 품은 자전거 코스 115km를 새롭게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로 자전거 타기를 꺼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자전거 여행은 자체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자전거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군은 해안 도로 방조제길, 염

전길, 노두길 등 총 8개 코스 500km의 자전거길을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자전거길은 압해도 코스에 12사도 순례길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점-소악도 25km 구간을 추가하고 임자도와 증도의 길목에 위치한 지도읍에 42km의 자전거길을 더했다.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코스를 직접 돌아보고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이달 중에 자전거 코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목포시,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못탄다

오늘부터 착용 의무화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고,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마스크착용 의무

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모든 시내버스(15대에 785명(대당 5명)의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참가

4일간 부산 벡스코 개최

함평군이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귀농귀촌시책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섰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

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도 함께 개최되면서 첫날부터 함평을 포함한 전국 100여개 지자체와 관련 업체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실제 귀농인이 참여한 2개의 부스를 운영, 나비꿀 등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올해 군이 역점 추진하는 귀농귀촌 시책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직접 지역현장을 체험할 수 있

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함평체험 팸투어'도 접수를 시작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으로 귀농귀촌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려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함평이 보유한 뛰어난 지리적 이점(KTX, 무안국제공항 등 인접)과 천혜의 자연환경 등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잘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민속씨름단, 유튜브로 농특산물 홍보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암읍 망호정 마을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영암 명품 농특산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암한끼 달마지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전라남도 와 영암군이 기획·후원하며,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판매전략이다.

'삼시세끼'를 패러디한 '영암한끼 달마지쌀'은 씨름의 희열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금강장사 최정만, 2019년 천하장사 장성우, 반전매력 까불스마의 한라장사 최성환, 목죽진지 한라장사 오창록, 씨름단 아이돌 장영진 선수 등 5명이 출연하여 한끼 밥상을 차리기 위한 과정을 연출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